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초안)

전문위원 부장판사 신 광 렬

I. 서론

1.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

- 지역별, 법원별, 재판부별 양형편차가 존재
 - 실형과 집행유예 결정 단계(선고형태)에서의 편차
 -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의 편차
- 적정한 양형의 부족
 - 특정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말아야 할 양형인자를 고려
 - 특정 양형인자에 대하여 부적정한 평가
- 높은 양형파기율
 - 양형에서의 항소심 역할
 -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 유무와 양형파기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가. 기존 연구

- 우리나라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연구 목적, 조사대상사건, 조사자료, 조사항목 및 양형인자, 분석결과는 별지 참조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 표본조사의 한계

- 표본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표본의 추출 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양형실무의 개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전국적, 전체적 양형실무의 현황과 원인을 보여주지 못함
-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뇌물죄 2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양형자료입력을 검찰청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연구자에 의한 조사는 판결문 조사에 그쳤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 결과 기존 연구가 표본조사에 그친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전수조사의 문제점(조사과정의 오류, 조사자 내부의 불균등성 등)이 부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양형인자 정의의 문제
 - 양형인자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여 조사자에 따라 양형자료를 입력하는 데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사결과 해석의 문제
 - 연구자의 관점과 양형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

3. 양형현황 분석의 목적과 방법

- 과거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합리적 타당성을 지닌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양형실무에 대한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최석윤, 양형실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 이하 같음)
- 양형의 법적 성질과 합리화 및 양형의 이론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최석윤)
- 조사 설계에서부터 분석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방법론상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최석윤)

II. 문제의 소재

1. 양형의 목표

- 양형의 목표는 적정하고, 균등한 일관성 있는 양형임

2. 양형의 적정

- ‘양형의 적정’은 국민의 형벌관과 양형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사회적·제도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임
- 양형의 적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양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공동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양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차원(거시적 차원)과 구체적으로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거시적 차원에서의 양형 목적이 개별 사건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개별적인 양형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차원(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거시적 차원에서 양형의 적정

(1) 입법부의 양형과 사법부의 양형

-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양형을 입법부의 양형과 사법부의 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말할 때 입법적으로 결정된 양형의 제도적 조건 하에서의 양형, 즉, 사법부의 양형만을 의미함
 - 최근의 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양형의 적정을 개별적인 사례에서 형평을 추구하는 배분적인 정의의 문제로 보고 미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손동권 외 1인,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 이는 개별 법관들이 입법부에 의한 양형을 주어진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양형실무에서 입법부에 의한 양형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입법부의 양형과 사법부의 양형은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
 - 입법에 의한 형벌체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 법관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양형체계의 적정화를 모색하고, 그 결과가 입법에 의하여 반영되기도 함

- ▷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폭처법, 특가법(뇌물), 특경법(수재) 등임. 즉, 폭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폭처법의 법정형이 정비된 것, 특가법, 특경법에서 뇌물·수재액이 세분된 것 등
-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와 같이 친고죄 여부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소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은 강간죄에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낳음
-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은 특정 시기 법원의 양형에 대한 입법부의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형사특별법 제·개정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상승 현상은 ‘작량감경의 일반화’ 현상 등 법원에 의한 양형의 부적정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
- 입법에 의한 양형과 사법에 의한 양형에 대한 관점
 -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사법은 입법에 의한 양형을 주어진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한계 내에서 양형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양형에서의 사법소극주의라고 할 수 있음)과 입법에 의한 양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의 적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양형에서의 사법적극주의라고 할 수 있음)이 있을 수 있음
 - ▶ 양형의 적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벌체계의 부적정성과 이에 대한 법관의 양형과정에서의 반작용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함

(2) 형사정책적 측면

- 양형은 규범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전 단계로서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이유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경우보다 오히려 무거운 양형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는 현재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규범적 측면을 본다면, 법정형 자체가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상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전자는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에서 사고 발생 전에 처벌하는 위험범이고, 후자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양형은 후자보다 가벼운 것이 적정함

- 한편, 예를 들어 관광지 또는 관광지 인접지역의 경우 지역 도로를 통행하는 외부인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는 현지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양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기범행의 경우 국가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파산 정책은 신용카드 관련 채무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시기가 있었음
- 위와 같이 양형의 적정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지역의 형사정책적 고려’라는 관점을 포함하여야 함
- ▶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양형의 차이를 양형의 지역별, 시기별 편차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 또한 형사정책적 고려 자체를 수용하는 법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이 있는 경우에 양자 사이에는 양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 결국 양형에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3) 형벌의 목적과 양형의 적정

- 양형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국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의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양형의 적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형사사법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 즉, 형벌(양형)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전제되어야 함

-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동일한 양형 패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4) 범죄유형별 양형의 적정

- 일반적으로 양형의 적정은 범죄유형별 양형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고 있음
 - 기업범죄와 절도·강도범죄 사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 범죄유형별 양형의 적정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범죄유형에 따른 기본형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인 평가를 전제로 함
- 또한 범죄유형 상호간에는 비교 가능한 것이 있고, 비교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범죄유형 분류 방식 및 분류기준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 범죄유형별 양형의 적정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서열화를 전제로 함

※ 범죄유형별 심각성 조사례(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철현 외 3인, 내림차순으로 죄명 정리)

1. 청부살인
2. 살인
3. 폭행치사(주먹으로 때려 사망)
4. 강도상해
5. 강도강간
6. 살인교사
7. 특가(도주차량) - 상해
8. 마약제조 및 판매
9. 강간치상
10. 강간

11. 폭처법(흥기상해)
12. 독직감금
13. 현주건조물방화
14. 폭행치사(가슴으로 밀어 사망)
15. 공문서 위조 및 사기 (이하 생략)

나. 미시적 측면에서 양형의 적정

- 미시적 측면에서 양형의 적정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양형의 목적과 원칙이이 구체적인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임
-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을 평가하는 방법은 양형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개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태와 선고형량이 적정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개별 피고인들을 동종 유사한 범주별로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형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전자는 일반적인 양형의 목적과 원칙으로부터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양형과정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 후자는 동종 유사한 범죄유형 내부에서 서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태와 선고형태의 적정 여부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범죄유형별 양형의 적정과는 다름
- 동종 유사한 범죄유형 내부에 속한 피고인의 양형 비교는 결국 피고인별 양형조건에 대한 가중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임
 -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유형에 속한 피고인 상호간에 다른 양형조건은 동일하고, 피해회복이라는 양형조건만 다른 경우 그에 따라 선고형태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면, 양형의 적정은 피해회복이라는 양형조건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에 의존함

- 동일한 양형조건이라도 범죄유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범죄유형에서는 피해회복이 선고형태를 좌우할 정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유형에 속한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정한 양형일 수 있음
- ▶ 미시적 측면에서 양형의 적정은 양형의 조건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전제로 함

3. 양형의 균등성 또는 일관성

가. 양형의 균등성 또는 일관성의 정의

- ‘양형의 균등 또는 일관성’은 동질·유사한 피고인의 동종·유사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이 균등하거나 일관되어야 하고, 담당법관이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따라 양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유사한 범죄’를 범한 ‘유사한 상황의 피고인’은 ‘법관’이 ‘동일한 법원 또는 서로 다른 법원’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유사한 형’을 받아야 함
- 반대로 서로 유사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하게 평가될 수 없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유사한 범죄를 범한 서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서로 달라야 함을 의미함

나. 차이(disparity)와 차별(discrimination)

(1) 차이와 차별의 의미

- 차이와 차별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같은 의미가 아님
- ‘차이(disparity)’는 반드시 의도적인 편견(intentional bias or prejudice)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없는 대우(treatment)나 결과의 상이함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일반 대학에 50세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 ‘차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 즉,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늙은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유래하는 차이는 아님
- ‘차별(discrimination)’은 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기준(irrelevant criteria)에 근거하여 대우를 달리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대학이 입학허가를 지원자의 고교성적이나 입학시험 성적이 아니라 백인인지, 흑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부자인 백인 남자라는 사실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의미함
- 즉, 소수인종 · 여자 · 빈곤층에 대한 의도적인 편견을 반영하는 것임

(2) 양형에서의 차이와 차별

- 양형에서의 차이는 유사한 피고인들이 다른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동일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발생함
- 즉, 차이는, ① 판사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전과를 가진 두 피고인들에게 다른 형을 선고하거나, ② 판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전과를 가진 두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하거나, ③ 선고형이 그것을 선고하는 판사 또는 선고되는 지역에 따라 좌우될 때 발생함
- 예를 들어, 마약범죄에 대하여 약물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관에게 선고받는 경우보다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믿는 법관으로부터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은 양형의 차이에 해당함
- 반대로 양형에 있어서의 차별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피고인의 특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함
- 남자가 여자보다, 가난한 자가 중산층이나 부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함
- 예를 들어 乙, 丙 모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음에도 무직의 흑인인 丙이 직업이 있는 백인인 乙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의 차별의 예임

(3) 차이와 차별의 구별 실익

- 양형에서의 차별은 양형의 차이와는 달리 차별의 원인이 되는 양형인 자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음
- 가령,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춘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가 서로 다른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양형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양형 차이의 유형

- 지역(토지관할)의 차이에서 오는 양형의 차이
 - 주로 법원 사이의 양형 차이에서 문제됨
- 동일 지역(토지관할) 내의 양형의 차이
 - 동일 지역 또는 법원에 속한 법관 사이의 양형 차이에서 문제됨
- 동일한 법관의 여러 판결 사이의 양형의 차이
 - 한 재판부가 여러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판결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임

(5) 양형 차별의 유형

- 양형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는 이상적인 체제와 형사사법 자체가 특정 계층 또는 부류에 대하여 조직적인 차별을 행하는 체제(예컨대,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민과 노예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는 의미에서의 차별임)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있을 수 있음
 - 후자의 예로는 1930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강간범 453명 중 405명이 흑인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가) 차별의 발생 원인에 따른 구별

○ 제도화된 양형의 차별(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 제도화된 차별은 제도 자체는 명시적으로 부당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지만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차별을 의미함
- 이러한 예는 양형에서 피고인의 고용상태를 고려할 것을 허용하는 법제도는 피고인의 고용상태 여하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다수인종이나 고학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높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학교가 소재한 지역(school zone)에서의 마약거래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학교 소재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이 주로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 형 가중 정책의 대상은 주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즉, 외관상 가치중립적인 법제도나 정책의 공평한 적용이 결과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제한적 차별(contextual discrimination)

- 특정 지역, 정책결정과정의 특정 단계, 특정 유형의 범죄 또는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고인 등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임
- 예를 들어, 성(gender)은 선고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선고형량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인종은 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제한적 차별의 예임

○ 개인적 차별(individual acts of discrimination)

- 특정 판사의 편향성에 의한 차별을 의미함
- 예를 들어 동일 관할 내의 한 법관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지만, 다른 판사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나) 차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구별

- 차별을 직접적 차별(direct discrimination)과 간접적 차별(subtle discrimination)로 구분하기도 함
- 직접적 차별은 차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차별을 의미함
 - 특정 사회적 지위에 있는 그룹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차이가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전과 또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양형인자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차별임
- 간접적 차별은 양형인자가 다른 인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함
 - 예를 들어 피고인의 주거부정 여부는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피고인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주거부정인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주거부정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구속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 정당한 차이와 부당한 차이(Warranted vs. Unwarranted Disparity)

- 양형의 차이는 차별과는 달리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지역(토지관할, 법원)별 양형의 차이
 -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에 따라 범죄에 따른 주민의 태도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지역별 양형의 차이를 낳을 수 있음

○ 동일 지역(토지관할, 법원) 내부의 양형의 차이

- 동일 지역(법원) 내부의 양형의 차이(Intra-Jurisdiction Disparity)는 주로 법관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양형의 차이임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처벌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를 지향하고 형벌의 목적에 대한 보편적 의견일치가 없는 상황 하에서는 같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고, 그 차이가 적법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서 형벌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근거 있는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피고인에게 선고되어야 할 형벌이 사건이 배당된 법관의 가치관·태도·신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양형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후자의 견해에서 보면, 법관의 가치관·태도 또는 신념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 가치관의 고집이 '유사한 범죄의 유사한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형벌'이라는 또 다른 정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 법관의 가치체계는 또 하나의 편견을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편견은 근거 없이 편협한 고집과 마찬가지로 형평과 공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일 법관의 판결 사이의 양형의 차이(Intra-Judge Disparity)

- 이는 대체로 정당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음
- 사람들은 법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성 있는 사안의 경중과 피고인의 특성에 터 잡아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한 형을 선고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마다 양형을 하는 기준이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 예를 들어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감정, 피고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 피고인의 절차적인 불손함(그것은 간혹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등에 터 잡아 주관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면 정당화할 수 없는 양형일 경우가

많을 것임

라. 균등성 또는 일관성의 개념요소

- 양형의 균등성 또는 일관성의 개념적 요소는 '유사한 범죄', '유사한 상황의 피고인', '법관', '법원', '유사한 형'임

(1) '유사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

-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범죄를 범한 피고인 사이의 양형은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양형의 균등성 또는 일관성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전제로 함
- 유사한 범죄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음
 -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2개 이상의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각각의 양형은 각각의 사건에 고유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형관에 기초해서는 양형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유사한 범죄를 설정하는 기준은 양형이론의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음
 - 즉, 양형의 기초는 행위자의 책임임을 전제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사한 경우를 '유사한 범죄'로 분류할 것임
 - 따라서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책임의 존재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사한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 '유사한 범죄'가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하고, 이는 양형이론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함

(2) '유사한 상황'의 피고인

-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 양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양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 요인에 의하여 양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은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을 예시하고 있음

- 결국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 중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과 '고려되지 말아야 하는 특성'이 분류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의 고려 방향(가중 또는 감경)과 고려정도가 정의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정도, 범행의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참작하는 정도,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을 고려하는 정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여부(재범위험률)를 판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교육정도나 기능 소지 여부, 혼인관계,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 개별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 피고인의 개별적 요인에 대한 평가방향과 평가의 정도가 논의되어야 함
- ▶ 특히, 정당화될 수 있는 차이와 그렇지 못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개별적 요인 중 고려되어야 하는 것과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음
- ▶ 또한 직접적인 차이 또는 차별을 낳는 요인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법관'

(가) 동일한 법관의 여러 판결 사이의 양형 차이

- 동일한 법관이 유사한 범죄를 범한 유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하면서 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법관은 법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판부를 의미함
 - 즉, 형사합의부의 경우 재판의 결론은 구성원 사이의 합의의 결과이

고, 따라서 인적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양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므로 동일한 재판부는 인적 구성이 동일한 재판부를 의미함

○ 동일한 법관의 판결 사이의 양형 차이는 특정 법관이 아주 작은 차이임에도 엄밀한 형의 개별화를 모색하는 결과 쉽게 관찰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중 또는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 이 경우 문제는 다른 법관에게는 쉽게 관찰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차이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영한 양형 역시 쉽게 관찰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차이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있음

- 즉, 선고형태를 좌우하거나 선고형량에서 큰 폭의 차이를 낳을 정도의 차이라면 양형 조건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임

- 양형 조건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크게 확대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특정 법관에게 고유한 가치관의 결과이고, 이는 그 자체로는 정당화될 수 있어도 전체 형사사법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편견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동일 법관의 양형 불균등성·비일관성은 해당 법관 또는 재판부의 특이한 행동양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법관의 감정이나 피고인의 성격, 생활방식, 범행 전후의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대한 평가, 심지어 변호인인 특정 변호사에 대한 감정 등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양형 차이는 단순한 차이(disparity)가 아니라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또는 법률적으로 무관한 피고인의 특성에 기한 차별로 평가될 것임

(나) 동일 법원 내의 법관 사이의 양형 차이

○ 양형의 불균등성·비일관성은 주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음

- ‘담당 법관에 따라 양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담당법관의

- 개인적 편향성이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사실은 비교형량의 과정에서 법관의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 평가가 법관마다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칠 수 있음
 - 문제는 '담당법관의 개인적 편향성'과 '양형사실에 대한 담당법관의 평가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여부임
- 동일 지역 내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범죄의 경중에 대하여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의 전과 등과 같은 법률적으로 관련 있는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어떤 법관은 다른 법관들에 비하여 더 큰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적은 비중을 둘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동일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법관들에 의하여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을 어떤 법관들은 통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어떤 법관들은 통상 집행유예에 처한다면 관할 내에서 양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또한 어떤 판사들이 다른 동료판사들보다 일반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함
- 동일한 관할내의 법관들이 유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른 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음
- 법관들은 형벌의 목적에 대하여 각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념이 그들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피고인들이 장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징역형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 법관들은 징역형이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법관들보다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많을 것임
- 또한 법관들이 갖고 있는 경력, 성별, 출신배경 등에 따라서도 양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 판사가 되기 전 변호사로서 활동한 법관은 검사로 활동하여 온 법관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음

- 여성 법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또는 여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범죄를 남자 법관보다 더 중한 범죄로 간주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음
- 노총각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많은 법관들은 그들이 도시지역에 와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법관들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음
- 즉, 동일한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양형철학과 경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이 선고하는 형도 다를 수 있음

(4) '법원'

○ 수소법원과 사법행정상의 법원

- 법원이 수소법원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를 의미하는 법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짐
- 법원이 사법행정상의 법원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결국 지역을 의미함

○ 양형의 지역적 차이는 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범죄가 더 무겁게 간주되고, 특정 유형의 피고인이 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발생함

- 예를 들어, 동일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들은 시골지역에서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그 원인은 편취액이 동일한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주민의 5,000만 원과 시골지역 주민의 5,000만 원의 가치는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수억 원 이상의 사기죄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반면 시골지역에서는 좀처럼 편취액이 수억 원 이상인 죄 재판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마약판매로 처벌받는 피고인은 마약남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시골지역보다 마약사용과 마약관련 폭력범죄가 문제로 되는 도시, 마약의 유통·유통의 출발점이 되는 특정 항구지역에서 보다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

(5) '유사한 형'

- ‘유사한 형’이라 함은 유사한 범죄를 범한 유사한 피고인이 서로 다른 법관에게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형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국가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형을 ‘유사한 형’으로 정의할 수 있음

(가) 형종

- 형법 제54조는 피고인에게 적용할 법정형이 여러 개의 형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먼저 형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형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형종이 서로 다른 경우 서로 유사한 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하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사이,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환형유치될 경우 100일의 노역장 유치를 감수하여야 하는 벌금 500만 원의 형과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2년의 형은 규범적으로는 후자가 월등히 무거운 형으로서 서로 ‘유사한 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자가 더 무거운 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유기징역형은 무기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성폭법의 특수강간치사죄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의 누범 가중을 하는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25년 이하 20년 이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

(나) 형량

- 실제로는 서로 ‘유사한 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문제됨
- 형사단독재판부의 양형에 있어서 6월, 8월, 10월, 12월, 14월 또는 15월, 18월, 24월, 30월, 36월 등으로 구분되는 것인 양형실무임

- 이 경우 서로 인접한 형, 즉, 6월과 8월, 8월과 10월은 서로 유사한 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문제는 6월형과 10월형, 10월형과 14월형, 12월형과 18월형은 유사한 형의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형사합의부의 양형에 있어서 12월, 18월, 24월, 30월, 36월, 42월, 48월, 54월, 60월, 72월, 84월, 96월, 108월 등 6월 또는 1년 단위의 양형이 이루어짐
- 이 경우 6월의 차이 또는 1년의 차이 등을 유사한 형의 범위 내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의 ‘유사한 형’과 형사합의사건에서의 ‘유사한 형’은 서로 다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즉, ‘유사한 형’의 범위를 형사합의사건과 형사단독사건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됨
- 형사단독사건에서 4월 또는 6월의 차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 합의사건에서의 양형실무에서는 서로 다른 형 사이에 최소한 6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사합의사건의 양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 이외에는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임
- ‘유사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유사한 정도의 불법에 대하여 허용되는 형량의 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유사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의 유형화가 전제되어야 함
- 여기서의 불법의 유형화는 이종의 범죄 사이의 유형화 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서열화와는 달리 동종 유사한 범죄 내부에서 불법의 유형화를 의미함
- 불법의 유형화는 법정형의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불법의 크기에 따라 범죄를 유형화하고 법정형을 어느 정도 세분하여 형벌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이 때 유형화를 어느 정도 행할 것이고 형벌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됨
- 예를 들어 불법의 유형을 원칙적으로 가중적 불법과 중간적 불법 및

경한 불법의 세 단계 정도로 나누거나 다섯 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적 불법(기본적 범죄유형)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형량의 폭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함

(다) 선고형태

- 선고형태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한 형'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예를 들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6월의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과 실형 6월 또는 8월형을 선고하는 것을 '유사한' 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효과와 실형 선고의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유사한 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복역기간을 고려하면 양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의 선고일 수 있음

III. 분석틀

-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고려할 수 있음

1. 총론

가. 형사실체법과 형벌체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은 법원이 현행 형사실체법 및 형벌체계의 부적정성에 반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음
-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양형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사실체법 및 형벌체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나. 형벌 또는 양형의 목적

- 형벌론 또는 양형의 목적론은 양형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됨
- 따라서 양형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벌론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양형의 목적으로서 응보, 특별예방과 일반예방, 재사회화, 범죄능력의 무력화, 피해회복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양형의 목적에 대한 상호관계 또는 서열화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
- 한편, 양형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형벌론 또는 양형의 목적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하나는 양형현황 분석의 도구로서의 양형의 목적과 양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양형의 목적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임
 - 다른 하나는 양형실무가 근거하고 있는 형벌론 또는 양형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의미함
 - 후자는 특정한 양형 패턴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형벌론의 관점에서는 용인될 수 있지만, 기존 형벌론의 실증적 귀결이 부당한 양형의 차이 또는 차별을 낳는다면 그것이 형벌론에 내재한 한계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석한 후 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형벌론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을 의미함

다. 범죄의 유형별 서열화 및 적절한 양형

-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의 적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서열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 전제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는 범죄유형별 형사정책적 고려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음

라. 양형이론의 검토

- 양형이론은 형벌론 또는 양형의 목적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주로 책임의 존재방식 또는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론과 책임과 예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임
- 양형이론에 따라 양형사유의 평가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형이론

은 양형의 균등성 내지 일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준이 됨

- 논의되고 있는 양형이론은 유일형이론과 범주이론, 사회적 형성행위이론, 판단여지이론과 위가이론, 범행비례적 양형이론 등이 있음

마. 양형사유와 그 평가

- 양형이론에 따라 형종과 형량, 선고형태를 결정하는 양형사유의 분류 방식이 차이가 남
- 동일한 양형이론 내부에서도 각각의 양형사유에 대한 평가방향과 가중치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동일한 양형사유라 하더라도 범죄유형별로 고려될 수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고, 특정 범죄유형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되지 말아야 하는 양형사유도 있을 수 있음
- 호주의 Law Reform Commission의 경우 양형사유를 범죄 관련 사유,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관련 사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행위 이외의 범죄자 행위 관련 사유, 범죄자의 배경과 환경 관련 사유, 범죄의 효과 관련 사유, 피고인 또는 그 가족, 피부양자에 대한 형선고의 효과 관련 사유, 장래의 양형의 목적을 제고하는 것에 관련된 사유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음

바. 유사한 범죄, 유사한 피고인의 특성, 유사한 형

- 양형사유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구별기준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선고형태와 형량, 용인할 수 있는 형량의 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형량의 폭을 정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음
 - 평균적인 형량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 비율의 형량 폭을 유사한 형으로 보는 방안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례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상호 비교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사. 기타

- 형종과 선고형태의 결정기준, 작량감경의 결정기준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

2. 조사대상 범죄의 분석틀

가. 사건현황

- 범죄의 발생빈도 추이
- 범인의 검거율 추이
- 수사기관의 처리내역(불기소사건 처리내역 및 원인)
- 기소율 및 구속 관계
- 범인의 개별적 특성
 -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군 경력, 사회적 지위, 월 수입, 혼인 관계, 혼인 연령, 부양가족, 주거 상태, 건강상태, 출신지역, 거주지역, 기능 소지 여부
 - 외국인 여부 및 출신 국가
- 범인의 범행전력
 - 범수(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 동종전과, 이종전과
 - 초범연령, 소년비행경력, 재범까지의 기간
 - 누범 관계(동종누범, 이종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가석방 여부
 - 37조 후단 전과 유무 및 후단 경합범의 내역
- 단일범, 경합범(동종경합, 이종경합, 동종 및 이종경합)
- 단독범, 공범(주범, 교사범, 방조범)

나. 양형의 일반적 현황

- 사건 처리내역
 - 법원별, 죄명별, 사물관할별, 사건유형별, 재판부별
 - 집행유예시 형량 분포

- 실행시 형량 분포
- 약식명령 형량 분포
- 고정사건 형량 분포
- 단일범, 경합범/단독범, 공범별 사건처리내역
- 범죄유형별 사건처리내역
- 법정형과 선고형 비교
 - 특히, 법정형 하한이 규정된 범죄의 사건처리내역

다. 양형사유별 고찰

- 범인의 개별적 특성별 양형
 -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종교, 군 경력, 사회적 지위, 월 수입, 재산관계, 혼인 관계, 혼인 연령, 부양가족, 주거 관계, 건강상태(정신질환, 육체적 질환), 출신지역, 거주지역, 전입시기, 기능 소지 여부
 - 외국인 여부 및 출신 국가
- 범행전력별 양형
 - 특히, 집행유예의 제한이 있는 경우와 집행유예의 제한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범행 이전의 태도(생활)와 양형
 - 학교생활의 성실성, 학업성취도 등과 양형
 - 약물 남용 전력
 - 가출 전력
 - 결손가정 등 가정환경과 양형
-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절차적 요인)와 양형
 - 자수, 자백(경찰 자백, 검찰 자백, 법원 자백), 합의(경찰 합의, 검찰 합의, 법원 합의), 반성
 - 구속관계
 - 공소장변경과 양형
 - 병합과 양형
- 범행 시부터 선고 시까지의 기간과 양형
 - 범행 시부터 기소 시까지의 기간과 양형

- 기소 시부터 선고 시까지의 기간과 양형
- 법원규모에 따른 양형
- 심급에 따른 양형
- 범행 관련 사유와 양형
 - 죄명별로 분석
- 기타
 - 재판부의 연령(평균연령), 성별, 경력(평균경력)에 따른 양형
 - 공판검사의 연령, 성별, 경력에 따른 양형
 -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선임시기, 변호인의 전 직업, 변호인의 범조 경력에 따른 양형

라. 종합분석

(1) 교차분석

- 형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고정사건과 구공판사건 중 벌금형선고사건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선고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집행유예 결정 시 본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집행유예 결정 시 집행유예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여부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 양형사유의 양형 결정 순서와 중요도

마. 평가

(1)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전체 양형현황에 대한 평가
- 범죄의 중대성 서열과 양형실무의 평가

- 양형인자의 적절한 분류와 가중치에 대한 평가

(2) 양형의 균등성, 일관성에 관한 평가

(가) 양형의 차별

- 양형의 차별 현황
- 양형의 차별을 초래하는 양형사유 등

(나) 양형의 차이

- 지역별, 법원별, 재판부별, 재판부 내부의 편차
- 양형 편차의 원인과 평가
- 양형 편차를 초래하는 양형사유 등